

미래형 자동차 HYUNDAI 광주에서 생산

현대차-광주시 협의
빛그린산단에 공장 설립
현대차 로고 찍어
2020년부터 생산키로
광주형 일자리 임금 4천만원
4일 현대차 산단 현지 실시



한 표 호소 6.13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3일 오후 신안군 입해도 송공항에서 비금도나 자은도 등으로 떠나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원들이 한표를 부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는 2020년이던 현대자동차 로고가 찍힌 미래형 자동차가 광주에서 생산된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올해 공장 착공을 위해 신속한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오후 현대차 임원들이 운영한 광주시장 등을 면담한 데 이어 4일 오전에는 현대차 기술실무진이 빛그린산업단지를 찾아 공장 설립에 필요한 기술 검토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3면>

시의 협상단(단장 정종재 행정부시장)도 4일 현대차 본사를 공식 방문해 투자 규모, 생산 차종, 규모, 위탁 기간, 가격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3일 '현대차가 지난 31일 투자 의향서를 보내는 뒤 투자협약 체결, 법적 검토, 투자기관 및 기업 모집, 합법적인 설립, 공장 착공 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협상의 핵심은 위탁 차종 및 규모, 기간 등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대차가 '경제성을 갖춘 신규 차종'의 생산을 광주에 들어설 공장에 위탁하고 연구개발, 판매, AS 등을 모두 맡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차의 위탁 차종이 경쟁력을 갖춘 경우 광주공장의 역할이 커지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 또한 막대해질 전망이다. 지역 내 타이어를 포함한 부품업체와 협력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추가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는 현대차가 투자하는 합작법인에 대주주로 직접 투자할 방침이다. 제주, 부산 등이 항공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법인 운영은 전문경영인이 맡게 된다. 합작법인

이 운영할 광주공장은 노동자에 대해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 임금을 평균 4000만원으로 묶는 대신 주거·의료·교육·복지 등을 지원해 실질소득을 높여주기로 했다. 성과급을 보장해 법인 수익이 증가하면 노동자의 임금도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

운영한 광주시장은 지난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31일 현대차로부터 광주시와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합작방식 독립법인에 여러 투자자 중 일원으로 지분 투자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사업참여 의향서'를 접수받았다"고 공개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 위탁 차종이 무엇

인지는 협상 결과 최종 결정될 전망으로, 이에 따라 작·간접 고용 인원, 생산 대수 등도 정해진다. 시는 현대차 브랜드가 찍힌 미래형 완성차 연간 10만대 생산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최대 완성차 메이커가 국내에 공장을 설립한 것은 지난 1996년 르노삼성차 부산공장에 이어 22년만이다. 고비용 구조, 노사문제 탓에 해외 공장 설립에만 몰두했던 현대차가 광주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도입에 따른 적정 임금 보장과 경쟁력 있는 생산시스템 구축 가능, 투자비의 최대 10% 보조금,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교육·문화·주거·의료 복지지원 등 시의 대규모 인센티브 등이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또 합작 투자 방식으로 경영 부담도 없다는 점도 투자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참여 의향서에서 현대차는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 결의를 기반으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에 시가 주체가 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지속 창출 사업과 관련해 여러 투자자 중 한 일원으로 사업 타당성과 투자 여부 등 검토를 위해 협의를 제안한다"고 명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지방선거 '표심은 무심'

후보들, 불별대위 속 표발 누비며 지지 호소

달아오르지 않는 선거 분위기에 맥빠진 유세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주말과 휴일을 맞아 각 후보들은 광주·전남 곳곳을 누비며 본격 표발 다지기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폭염주의 보가 내려지는 등 때 이른 무더위와 더불 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따른 일부 후보의 압도적인 우세가 이어지면서 과거와 달리 선거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았다. <관련기사 3·4·5·6면>

2일과 3일, 광주·전남 후보들은 전통 시장부터 유원지까지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했다. 광주시장에 출마한 이윤섭 민주당 광주시장, 전덕영 바른미래당 후보, 나경태 정의당 후보, 윤민호 민주당 후보는 각각 광산구 영광동 사거리와 첨단 중앙공원, 전남대 후문, 첨단지구 등지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남지사예 도전한 김영록 민주당 후보, 박대호 바른미래당 후보, 민영삼 평화당 후보, 노형태 정의당 후보, 이상수 민주당 후보도 전남 동·서부를 오가며 유권자들과 소통했다.

시·도 교육감 후보들도 도심 곳곳과 오일장, 종교시설 등지에서 이름을 알렸다. 광주교육감에 출마한 이정선, 장휘국, 최영태 후보는 광주송정역시장, 기아캠 피스빌, 풍암저수지 등을 돌며 집중유세를 했다.

또 전남교육감에 출마표를 던진 고석규, 오인성, 장석용 후보도 종교시설과 변화가, 전통시장을 돌며 지지세를 결집

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후보들도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광주 서구갑 재선거에 도전하는 송갑석 민주당 후보, 김명진 평화당 후보는 각각 광천동 성당과 상가, 서문교회, 치평동 등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또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서삼석 민주당, 이윤석 평화당 후보도 신안 지도와 중도, 임자도를 찾아 주민들을 만나거나 신안 지도읍 오일장을 찾아 세물이에 나섰다.

반면 지난 2일 광주와 전남 4시·군에 올 첫 폭염특보가 내려져 일부 후보들이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예정된 길거리 유세를 늦추거나 취소하는 등 폭염이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의 독주 속에 가뜰이나 선거 분위기가 뜨겁지 않은데, 무더위까지 겹치면서 이번 선거가 '무더위' '무관심' '무경쟁' 등 이른바 '3무' 선거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역 한 기초단체장 후보는 "주말에 기초단체장 방송 토론회 녹화가 있었던 탓도 있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 한낮 거리 홍보 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투표일이 다가오는데 무더위와 유권자의 무관심이 이번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북미정상회담 D-8...남북미 종전선언 이뤄지나

비핵화·체제보장 최종 조율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길을 여는 '세기의 대담판'인 북미정상회담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일단 북미 양측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고리로 최종 조율을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

화 선언은 물론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핵탄두·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구체적 경제완화·해제·안전보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은 '신속한 일괄타결'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원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김

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향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도 유력시된다. 정부는 북미간 협의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법무법인 서석영입인사

저희 법무법인 서석영에서는 이번에 **박민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대표변호사로, **박정준 변호사**(변호사 시험 6회)를 **소속변호사**로 영입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법무법인 서석영**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오니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학력 및 경력	
대표변호사 박민섭	변호사 박정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제37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7기)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특허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장 (부장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6회) 장기 군법무관 선발시험 최종합격 법무사관 88기 대한변호사협회·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재능기부변호사 (주)가이건축 (주)에이엠특장 (주)금익비에이 교문변호사
<p>장 소 : 광주 동구 지산동 동명로 110, 206호 (지산동 법조타운) 대표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공공) 062-226-5515 팩스 : 062-226-5554</p>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초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연일 20 (소촌동))
 수암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림로대로 520(수암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저속7단), 복합회합모드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시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시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